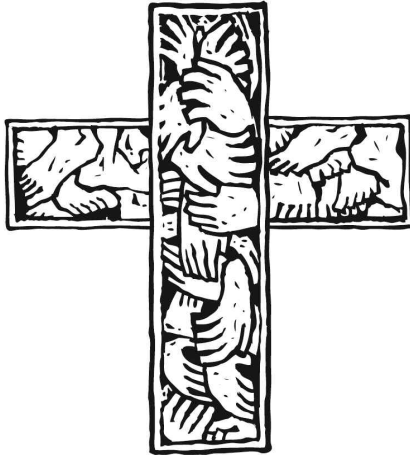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11주 】

인도 1부 : 신진식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 경배의 찬송 8. 거룩 거룩 거룩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알맞은 지혜를 일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며칠 전 입동 절기를 지냈습니다. 이맘때면 디모데에게 겨울 외투를 가져다 달라던 사도 바울의 편지글이 생각납니다. 주님,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갑질 폭행이 여전한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정한 재물과 지위를 이용하여 더러운 욕심을 채우고, 사람을 멸시하며 폭력을 저지르는 행태를 별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존귀한 인격체로 대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시124:7,8 인도자
 - ▲ 교 독 문 36. 시편 90편 다 함께
 - ▲ 영 광 송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함께
 - 2부대표기도 윤성종 권사
 - 2부응답송 찬양대
 - 2부찬양 324.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다 함께
 - ▲ 성경봉독 샅 3:7-11
 - I. 인도자
 - II. 남인자 집사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봉독자
다 함께
- 찬 양 I. 주를 앙모하는 자 마중물 찬양대
 - II. 겸손 청파 찬양대

말씀	의를 위해 일어서다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412.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브라스밴드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망각과 무관심, 외면의 늪에서 빠져 나오십시오. 짙은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이들을 향한 빛의 손길이 되십시오. 오늘 밝힌 작은 불꽃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다함께:	아멘. 어제의 잘못을 쉽게 잊고 또다시 반복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악행을 살피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관행의 인력과 불의한 일을 못 본 체했던 타성에서 벗어나,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특강 / 강의 : 김진수 장로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김재흥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참 자아를 지키는 자가 일으키는 변화

소명을 향한 여행 중 겪게 되는 회의와 우울을 극복함으로써 나는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즉 자기를 돌보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나의 유일한 재능,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재능을 잘 관리하는 책무일 뿐이다.

1955년 12월 1일,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서 로자 파크스는 그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버스 앞쪽의 백인 전용 좌석에 앉은 것이다. 그것은 엄연히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위험하고 대담하며 도발적인 행동이었다. 여러 해가 지나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떤 대학원생이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그날 당신은 왜 버스 앞자리에 앉았나요?” 로자 파크스는 사회 변혁을 꾀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진 않았다. 그녀의 동기는 아주 단순했다.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피곤한 건 그녀의 몸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영혼이, 그녀의 마음이, 그녀의 존재 전체가 인종차별주의자들의 규칙에 놀아나는 것에, 그녀 영혼이 주장하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에 피곤해졌다는 의미이다.

물론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그녀의 결정을 복돋아 준 힘은 여럿 있었다. 그녀는 일찍이 마틴 루터 킹 2세도 다녔던 학교인 하이랜더 포크 스쿨에서 비폭력운동의 이론과 전술을 배웠다. 또한 당시 시민불복종운동을 논의하고 있던 유색인종 발전을 위한 전국 연합회 몽고메리 지부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12월의 그 날 버스 앞자리에 앉던 그 순간에는 비폭력운동이론이 효과가 있을지, 단체가 자기를 지원해 줄지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었다. 그것은 실존하는 진실의 순간, 진정한 자아를 주장하는 순간이며 타고난 선물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는 그 순간 이 땅의 지형과 법칙이 바뀌었다.

로자 파크스는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받아들이는 데 꼭 필요한 어떤 지점에 도달했기에 - 사회개혁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완전한 자아를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려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앉았던 것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내면에 간직한 진실과 상반되는 외면을 가장하며 살지 않으리라. 나는 더 이상 불완전한 사람인 척하며 살지 않으리라.’

차별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처벌을 가하는 사회에서 ‘버스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사람들은 흔히 “마음 속 생각을 내보이지 말라”,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라” 등을 들먹이며 차별을 감내하라고 충고한다.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차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용기를 얻는가? 로자 파크스와 같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답은 간단히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처벌의 개념을 바꾸었다. 그들은 남이 가하는 처벌보다 자기 스스로를 비하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내리는 처벌이 더욱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로자 파크스 이야기를 보자. 그녀가 버스 앞자리에 앉자 얼마 후 경찰관이 차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거기 계속 앉아 있으면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겠소.” “그렇게 하세요…….” 로자 파크스는 아주 예의바르게 대답했다. “내가 사십 년 넘게 스스로를 가두었던 감옥에 비하면, 벽돌과 철망으로 만들어진 당신네 감옥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막 인종차별이라는 제도를 거부함으로써 그 감옥에서 빠져 나온걸요.”

참자아를 주장하다가 받는 처벌이 아무리 호되다 해도, 참자아를 주장하지 못해서 스스로에게 내리는 처벌보다는 견디기 쉽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남이 주는 그 어떤 보상도 자기 스스로의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데서 얻어지는 보상만은 못하다.

- 파커 J. 파머,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한문화) 중에서

나무 한 권의 낭독

- 고영민

바람은 침을 발라 나무의 날장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다
언제쯤 나도 저러한 속독을 배울 수 있을까
한 나무의 배경으로 흔들리는 서녘이
한 권의 감동으로 오래도록 붉다
얼마나 읽고 또 읽었으면
저렇게 너털너털 떨어져나갈까
이 발밑의 날장은 도대체 몇 페이지였던가
바람은 한 권의 책을 이제
눈 감고도 외울 지경이다
또 章들이 우수수, 뜯겨져나간다
숨진 자의 영혼이
자신의 몸을 물끄러미 바라보듯
바람은 제 속으로 떨어지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손바닥으로 받아들고
들여다보고 있다
날장은 손때 묻은 바람 속을 날다가
끝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밟힌다
철심같이 앙상한 나무 한 그루가
인적 드문 언덕에 구부정히 서서
제본된 푸른 페이지를 모두 버리고
언 바람의 입으로 나무 한 권을
겨우내 천천히 낭독할 것이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광정자 국지연 권미숙 김광일 이부용 김나름 김명하 오형일 김미숙 김병대
 김성순 김선지 김선희 김영락 김영희 김예준 김익한 김인숙 김재흥 최희영
 김정길 최숙화 김정린 김종성 김준호 광혜자 김지현 김진혁 신다현 김태한
 김형근 김혜영^a남명진 김애정 문병욱 박규석 박경선 박기영 박기원 이미영
 박석희 조항미 박숙미 박옥순 박인혁 고숙이 박재우 정충원 박영진 박준민
 최광희 박창운 허정운 박태영 박해숙 백묘현 백성래 서수진 서이순 서해나
 손이주 송남필 안미순 안성호 김희숙 오미숙 왕수명 유경주 유금주 유지은
 윤성종 김윤정 윤영미 은종인 이광섭 김수연 이근식 신영신 이동천 이영미
 이왕준 송상경 이우상 이계월 이우엘 이인웅 오송경 이재삼 전정현 이증자
 이치림 강상연 이현죽 이형숙 임고은 임선자 임찬양 장기환 장선갑 장춘란
 전아영 전찬익 이은자 정종삼 정현숙 최 숙 최옥분 최옥자 최옥진 최 현
 최희영 하현일 김광우 현우영 홍복선 홍소형 홍윤선 무명1

감사헌금

강혜린 김반야 김재흥 김지해 김필순 변종복 손이주 이광재 이증자 임종수
 최광열 진 숙 홍예선 정다운 나오미 1선교회 무명11

녹색꿈헌금

고영희 문복순 무명2

생일감사헌금

정용구 이삼남 무명1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교회소식 ■

1. 특강 : 오늘 오후1:30 교육관에서 “선한 영향력”이란 제목으로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는 김진수 장로(뉴저지 세빛교회)입니다.
2. 선교회 총회 : 다음 주일 오후 모임은 선교회입니다. 총회로 모이시고 활동보고서(재정보고)와 새임원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활동보고 : 각부서와 기관은 2018년 한 해 살림(재정)을 정리해 사무실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부 회의 : 오늘 12:30 세미나실에서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5. 김장 : 14일(수) 오후1:30, 15일(목) 오전10시에 교회 김장을 합니다.
6. 신앙실천 : 15일(목)은 수능시험일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떡 커피 대접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설교 본문	출 33:7~11
------------	-----------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이한림	이재삼

11월	1부 영접위원	최미자	헌금위원	하현철
	2부 영접위원	박범희 장병준	이성범 권미숙	한양미 박소현
	2부 헌금위원	김정민 서정순		

오늘 식당 봉사	백혜숙 백성래 정현숙 임영선 장현희 서이순 김종성 김광일		
다음주식당봉사	곽권희 김진선 권현숙 서미경 유중희 강희석 박명제 김재환		
오늘설거지봉사	3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4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2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이재선